

##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2부: 실례들-

김정우\*

우리는 앞 호의 글,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에서 히브리 시의 중심적인 특징을 이루는 평행법을 지난 2000년 동안 히브리 시학자들(詩學者)이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글에서 평행법이 나타나는 몇 개의 시문(詩文)들을 다루면서 본문의 해석과 번역 문제를 살피며, 앞 글에서 얻은 통찰력을 따라 평행법의 몇몇 용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sup>1)</sup>

### 1. 반복을 통한 점층 효과: 아담의 애모곡(창 2:23)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자마자 황홀감에 잠겨 내뱉은 탄성은 성경의 첫 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창 2:23). 남녀로 구성된 인류의 출현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아담의 시는 창세기 1:26-27에 있는 내러티브와 매우 다르게 시인의 흥분과 감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담의 애모곡(愛慕曲)은 우리말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개역』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

---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1)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본문들과 분류들은 결코 종합적이지 않다. 우리는 이 글에서 평행법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으며, 번역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대표적인 유형들을 새롭게 살피고자 한다. 이미 왓슨(Watson)은 평행법의 유형으로서, (1) 한 쌍의 성(性) 평행법, (2) 단어의 쌍 평행법, (3) 숫자 평행법, (4) 계단식 평행법, (5) 기타 유형을 제시한 바가 있다. Wilfred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6), 114-159. 그는 ‘기타 유형’ 가운데 하나로서 ‘야누스 평행법’(janus parallelism)을 제시하고 있다. 야누스 평행법에 대한 토론과 예로서는 John S. Kselman, “Janus Parallelism in Psalm 75:2”, *JBL* 121 (2002): 531-532; Meir Malul, “Janus Parallelism in Biblical Hebrew: Two More Cases (Canticles 4,9.12)”, *Biblische Zeitschrift* 41 (1997): 246-249를 보라.

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공동』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표준』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개역개정』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위의 네 번역에서 『개역』과 『개역개정』은 내러티브적인 서술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공동』과 『표준』은 문체적 장치(인용부호와 감탄사), 언어적 압축, 음성학적 대칭을 통하여 시적인 느낌을 상당히 깊이 드러내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래와 같이 두 행으로 배열될 수 있다.

זֹאת הַפֶּעַם עֵצָם מַעֲצָמִי וּבָשָׂר מִבָּשָׂרִי  
לְזֹאת! קָרָא אֱדָם כִּי מֵאִישׁ לָקָחָהּ זֹאת:

아담의 시에서 ‘이것’(zo’t)이라는 지시대명사는 제1행 첫 단어와 제2행의 첫 단어와 문장의 마지막 단어로서 세 번 나타나며 강조되고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지시대명사 ‘이것’(zo’t)이 한 문장 안에서 두 번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창 29:27; 겔 21:31; 43:12; 숙 5:6), 여기에서와 같이 세 번 나타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아담은 그의 앞에 운명적으로 불현듯이 나타난 한 여인에 대하여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며, 그의 생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그 여인에게 붙들려 있다. 우리말 번역들에서 이 요소는 매우 약화되어 있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이것’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에서는 생략하고, 『표준』에서는 단 한번 ‘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의 본문에서 ‘이것’(zo’t)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며, 이 지시 대명사는 아담의 연인과 반려자로서 하와를 가리키므로 ‘그대’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 시의 또 다른 묘미는 ‘드디어’(hapa’am)라는 두 번째 단어에 있다(창 18:32; 29:34-35; 30:20; 46:30; 출 9:27; 10:17; 사 6:39; 15:3; 16:18, 28).<sup>3)</sup> ‘드디어’(『공동』)

2) 이 시를 ‘고시’(古詩)로 본다면, 우리 말에서도 고어(古語)인 ‘남’으로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고든에 따르면, ‘평행법’은 단어, 구, 절에만 제한되지는 않으며, 더 ‘긴(문학적) 단위들’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창세기 2:23의 ‘마침내’는 창세기 1:28을 되돌아보며 첫 창조에서 남녀는 서로 끌리지 않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창조를 통하여 서로가 연합하는 장면이 그려진다고 논증하며, 이 현상을 ‘쌓아올리기’(buildup)와 ‘절정’(climax) 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Cyrus H, Gordon, “This Time (Genesis 2:23)”, M.

는 ‘이제야’(『표준』)와 유사하지만, 좀 더 강한 느낌을 준다. 아담은 오랫동안 자신의 반려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으나(창 2:19-20), ‘이제 비로소 그가 나타났다.’ 『개역』에서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 ‘드디어’를 생략해 버린다. 우리는 순수 우리 말인 ‘마침내’(< ㅁ츨내 < 훈언 > < ㅁ+옴+내 >))로 번역하여 두 사람의 첫 대면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어려운 표현은 ‘뼈’와 ‘살’에 대한 것이다. ‘뼈’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며, ‘살’은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때에는 단지 ‘육체적인 차원’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함의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인간 실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욥 2:5; 시 102:5). ‘뼈’와 ‘살’이 인간의 상호 관계적 차원에 사용될 때에는 주로 ‘친척’(창 29:14), ‘부족’(삿 9:2) 혹은 ‘지파’ 간의 ‘연대성’을 가리킨다(삼하 5:1; 19:13-14). 현재의 본문에서 ‘내 뼈 중의 뼈’와 ‘내 살 중의 살’이란 구문은 번역에 따라서 전치사 **민**(min + ‘etesem, basar)을 기원(『공동』), 소유(『표준』), 혹은 ‘최상급(『개역』)으로 다루고 있다. 여자의 출현에 대한 본문의 문맥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기원’ 혹은 ‘근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구약성경에서 ‘뼈’와 ‘살’은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를 가리키므로,<sup>4)</sup>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은 최상급으로서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통전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sup>5)</sup>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담의 애모곡 이후에 바로 다음 절에서는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는 결혼 언약이 제시된다고 말할 수 있다.<sup>6)</sup> 우리는 음성학적인 차원과 구문론적인 차원을 최대한 살려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보았다.

“마침내 그대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입니다.

---

Fishbane, et al, eds., *Sha'arei Talmon: Studies in the Bible, Qumran, and the Ancient Near East presented to Shemaryahu Talmon*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2), 47-51.

- 4) 창세기 2:23의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서로 골육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오직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혈육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적 배경 때문에 후에 레위기에서는 짐승과의 교합을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
- 5) ‘뼈’와 ‘살’은 한 쌍의 단어로서 인간의 ‘강함’과 ‘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욥 2:5; 10:11; 19:20; 33:21; 시 38:3; 102:5; 미 3:2). 이 두 단어가 함께 결합될 때에는 인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 Walter A. Brueggemann, “Of the Same Flesh and Bone, Gn 2:23a”, *CBQ* 32 (1970), 535 참조. 브루거만은 ‘뼈’와 ‘살’을 오늘날 결혼식의 서약 형식인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부유할 때에나 가난할 때’와 같은 것으로 본다.
- 6) ‘살 중의 살’(basar mibasari)은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둘이 한 몸(basar 'echad)을 이룰 것이다’로 연결된다. A. F. L. Beeston, “One Flesh [Gen 2:24; uxori-local marriage]”, *VT* 36 (1986), 115-117.

그대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그대는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이 시에서 아담과 하와의 뿔 수 없는 연대성과 상호 헌신은 ‘그대’(zo’t)를 삼중적으로 반복하며, ‘뼈’(etsem)와 ‘살’(basar)의 이중적인 반복하고, ‘남자’(ish)와 ‘여자’(isha)의 음성학적 유사성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마침내’라는 실존성과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이라는 친밀한 관계가 점층적으로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즉,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인 유사성을 가지지만, 남녀의 연합은 이 세상의 어떤 연대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 2. 생략을 통한 이중 효과: ‘사모함’과 ‘다스림’(창 3:16; 4:7)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준 후 주님의 심판 언도를 받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는 성경 가운데 가장 곡해된 본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핵심 구절로 사용되어 왔다(『개역』 창 3:16).<sup>7)</sup> 이 절은 원문에서는 삼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말 성경에서는 아래와 같이 번역되고 있다.

הַרְבָּה אֲרֵבָה עֲצָבוֹנֶךָ וְהָרַבֵּךְ  
 בְּעֵצָב תֵּלְדֵי בָנִים  
 וְאֶל-אִישׁךָ תִּשְׁתַּקְּטֵךְ וְהוּא יִמְשָׁל-בְּךָ:

『개역』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공동』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표준』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7) Mary Phil. Korsak, “Translating the Bible: Bible Translations and Gender Issues”, A. Brenner, eds., *Bible Transl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32-146 참조.

이 본문의 번역과 해석에서 우리 말 성경들과 여러 번역 성경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1) 제1행과 제2행에서 ‘잉태’(heron)와 ‘출산’(yalad)은 『개역』과 『표준』에서는 잘 살아나고 있지만(KJV), 『공동』과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둘 다 ‘출산’으로 처리하고 있다(NAB, NAS, NIV, NJB, NRS). 수많은 번역들이 두 단어를 ‘출산’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아마 ‘잉태의 고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문맥 전체가 ‘출산’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잉태’는 명사형(호 9:11; 룻 4:13)에서나 ‘잉태하다’는 동사형(hara)에서 아이를 갖는 첫 순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므로(창 16:4; 25:21; 삼하 11:5 등) 현재의 본문에서도 ‘잉태’와 ‘출산’의 두 단계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잉태’와 ‘출산’은 어떤 한 단계라기보다 한 여인이 ‘아내와 어머니’로서 사는 인생의 모든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merism).

(2) 제3행을 이루는 말씀인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개역』)는 1, 2행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아내(여성)의 고통’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전통적으로 이 절은 창세기 2:24과 에베소서 5:22과 함께 ‘정상적인 부부 관계의 규범’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 말씀은 하와의 타락에 대한 심판의 맥락 속에서 주어졌으므로, 학자들은 ‘첫 인간의 타락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지배와 종속의 질서를 규범화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sup>8)</sup> 그러나 히브리 시의 평행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 절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은 이후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과 핵심 용어(‘사모하다’, ‘다스리다’)와 구문 구조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창 4:7). 두 본문을 병렬로 놓고 보면 다음과 같다.

וְאֵל-אִשָּׁךְ תְּשׁוּקָתְךָ וְהוּא יִמְשָׁל-בָּךְ:  
וְאֵלֶיךָ תְּשׁוּקָתוֹ וְאַתָּה תִּמְשָׁל-בּוֹ: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말 성서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개역』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공동』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8) 아내의 남편에 대한 종속개념은 이미 70인역 번역에도 나타나고 있다. 70인역 번역자는 ‘사모함’(teshuqa)이란 단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돌아감(return), 회심(conversion), 혹은 복종(submission)으로 읽었으며(teshuba), 이후 불가타역에서는 ‘너는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을 것이며(sub viri postestate eris),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표준』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행(行) 첫 구(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죄’(chatta’t)이므로 ‘죄’를 삽입하여 번역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죄의 소원은 너를 향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 ‘죄’가 ‘가인을 사모한다’는 표현이 충격적이다. 현재의 문맥에서 ‘죄’는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의인화되고 있다(7절). 즉, ‘죄’는 ‘동물적인 굶주림’으로 ‘가인을 집어삼키기를 사모하고 있으며,’ 가인은 이 유혹과 충동을 물리치고 이겨내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이 생략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행은 다음과 같이 새롭게 배열될 때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sup>9)</sup>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사모하나(teshuqa),  
너는 죄를 다스리도록(mashal) [사모하여야 한다].”

즉, 의인화된 죄와 가인은 서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리고 있다. 여기에서 ‘사모함’이란 명사형은 남녀 사이에 있는 원초적인 갈망과 사랑을 뜻할 때 사용되는 희소한 단어이다(아 7:11).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16의 제3행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사모하고(teshuqa),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mashal) [사모할 것이다].”

즉, 이 절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는 근본적인 균열과 왜곡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들의 가정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의 현장이 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두 본문에서 ‘사모하다’(teshuqa)는 동사는 ‘이성을 향한 성적인 욕망’이나<sup>10)</sup> ‘남성과의 친밀성을 나누려는 심리적 필요성’이 될 수 없으며,<sup>11)</sup> ‘다스리다’(mashal)는 동사도 ‘잘 보살피다’는 뜻보다<sup>12)</sup> ‘권

9) Grant H. Ward, “Two Words (and their translations) that have indeed Hurt”, Robert F. Shedinger, Deborah J. Spink, eds., *Who killed Goliath?* (Valley Forge: Judson Pr, 2001), 11-26.

10) L. Ouellette, “Woman’s Doom in Genesis 3:16”, *CBQ* 12 (1950), 389-399.

11) I. A. Busenitz, “Woman’s Desire for Man. Genesis 3:16 Reconsidered”, *GTJ* 7 (1986), 203-212.

12) R. M. Davidson, “The Theology of Sexuality in the Beginning: Genesis 3”, *AUSS* 26 (1988), 121-131. 더 상세한 토론으로는 Susan Foh, “What is the Woman’s Desire?” *WTJ* 37 (1974/75), 121-131을 보라.

위를 행사하다, 지배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보겔스(Vogels)가 잘 말하였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며 권력 투쟁과 억압을 가져온다. 상호 보충성은 상호 지배로, 친밀성은 소외감으로, 상호성과 동등성은 지배와 왜곡으로 대치되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붙들고 지배하며 깨뜨리려는 욕망이다.”<sup>13)</sup>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사모할 것이다.”

### 3. 숫자 평행법

#### 3.1. 음성학적 유사성을 통한 극대화: 라멕의 ‘보복의 노래’(창 4:23-24)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인 ‘아다’와 ‘셀라’를 불러서 자신의 무용담(武勇談)과 잔혹성을 자랑하며 ‘자의적 정의에 근거한 무한 보복’을 선언하고 있다.<sup>14)</sup>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 말 성경 번역은 다음과 같다.

עֲדָה וְצִלְהָ שָׁמְעוּ קוֹלִי  
נָשִׁי לְמִדַּת הָאוֹנֶה אִמְרָתִי  
כִּי אִישׁ הִרְגַתִּי לִפְעֻעֵי  
וְיִלְד לְחִבְרָתִי:  
כִּי שִׁבְעִים יָקָם קוֹן  
וְלִמְדָּ שִׁבְעִים וְשִׁבְעָה:

『개역』 아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

13) Walter Vogels, “The Power Struggle between Man and Woman (Gen 3,16b)”, *Biblica* 77 (1996): 197-209.

14) 라멕은 아랍어(*yalmak*)에서 ‘아주 강한 사람’을 뜻하며(HALOT), 고대 아카드어 인명에도 나타나고 있다(Lam-ki-um, Lam-ki-Ma-ri). S. Gevirth,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26. 카수토에 따르면 ‘아다’는 ‘장식품’, ‘셀라’는 ‘그림자’, 혹은 ‘카랑카랑/살랑살랑/잘랑잘랑’처럼 여성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다.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Israel Abrahams, trans. (Jerusalem: Magnes Press, Hebrew University, 1961), 234. 이렇게 보면 아다와 셀라는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과 매혹적인 소리를 상징해 준다. 아가 2:14에는 ‘얼굴’(mar’eh)과 ‘소리’(qol)가 한 쌍의 단어를 이루고 있다.

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 이리로다

『공동』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 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 버리리라. 카인을 해친 사람이 일곱 갑절로 보복을 받으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일흔 일곱 갑절로 보복받으리라.”

『표준』 “아다와 쉴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흔일곱 갑절이다.”

평행법과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 라멕은 자신의 ‘상처’(petsa‘)와 ‘부상’(chabura)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다.<sup>15)</sup> 이 두 단어의 번역에 있어서 ‘창상’(創傷)과 ‘상함’(『개역』), ‘상처’와 ‘상하게 한’(『표준』), ‘다치다’와 ‘손찌검하다’(『공동』)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공동』은 첫 단어와 둘째 단어 사이에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라멕이 받은 상처가 구체적으로 ‘손찌검’ 정도로 미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처’와 ‘부상’은 자주 평행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으며,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출 21:25; 잠 20:30; 사 1:6).<sup>16)</sup> 즉, 그는 ‘부상’을 당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2) 라멕은 자신이 당한 부상 때문에 제1행에서는 ‘사람’(‘ish)을, 제2행에서는 ‘소년’(yeled)을 죽였다(harag)고 자랑한다(『개역』). 여기에서 ‘사람’과 ‘소년’의 평행법은 이례적이며 특이하다.<sup>17)</sup> 전투의 맥락에서 만약 첫 행에 ‘사람’이 나왔다면, 제2행에서는 ‘용사’(gibbor)나 ‘택한 용사’(bachur)가 나와야 정상이다. 즉, 라멕은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는 ‘어른’(‘ish)과 싸웠으며(1행), 구체

15) 카수토는 ‘~때문에’(le)로 번역한 전치사에 대하여 ‘~하자마자’로 번역하고 있다. 즉, “나를 때리자마자, 나는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상처를 주자마자, 소년은 죽었다”로 해석함으로써 그의 조급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240).

16) 만약에 제2행의 ‘부상’을 ‘멍’으로 본다면 라멕이 당한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여기에서도 과잉 보복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다.

17) ‘사람’(‘ish)과 ‘소년’(yeled)의 평행법은 『공동』에서는 반영되지 않으며 이 두 단어를 합하여 ‘젊었다’로 번역한다. 『표준』에서는 ‘남자’와 ‘한 젊은 남자’의 대구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1행의 ‘남자’라는 일반적 호칭에서 제2행의 ‘젊은 남자’로 넘어감으로써 제2행은 더 강하고 힘센 사람으로 비추어진다.



적으로 ‘용사’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2행)고 해야 그의 자량이 정상적이 된다. 그러나 그는 제2행에서 ‘소년’(yeled)과 싸워 ‘그를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사평행법’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비르츠(Gevirtz)는 고대의 장수들(알렉산더, 한니발, 라암세스 II, 아킬레스 등)이 대부분 ‘소년 시절’부터 무예를 익혀 용사가 되었으므로, 여기의 ‘소년’을 ‘존칭’(honorific title)으로 해석한다.<sup>18)</sup> 그렇지만, ‘소년’(yeled)이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구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부분 ‘어린아이’이거나 ‘갓 태어난 아이’를 뜻한다(HALOT).<sup>19)</sup> 따라서 쿠겔(Kugel)의 입장에서 보면 ‘소년’은 ‘초점화’(focusing)이며, 알터(Alter)의 입장에서는 ‘강화’(intensification)이다.<sup>20)</sup> 즉, 독자들은 라멕이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어린이를 죽였다’는 자랑을 들을 때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

(3) 라멕은 숫자 평행법의 기법을 사용하여 무한보복을 선언하고 있다. “가인을 해친 별이 일곱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별은 일흔일곱 갑절이다”(『표준』)에서 ‘일곱 갑절’과 ‘일흔일곱 갑절’의 평행법은 정상적인 숫자 평행법 형식( $x // x+1$ )의 형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만약 라멕이 정상적인 평행법 형식을 따랐다면, ‘일곱 배’ 다음에 ‘여덟 배’를 사용하거나 좀 더 세게 말한다면, ‘일곱 배’와 ‘칠십 배’를 불렀을 것이다. 히브리 율법에서 사람들 사이의 보상규례에서 ‘일곱 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잠 6:31 예외). ‘일곱 배’는 하나님의 보복을 가리키는 ‘이상적 숫자’로서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레 26:18, 21, 24, 28; 시 79:12). 그러나 라멕은 ‘칠십칠 배’를 주장하고 있다.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복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지만, 라멕은 스스로 가인의 보복 척도에 칠십 배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서 라멕은 ‘일곱 배’(shib‘tayim)과 ‘일흔 번의 일곱 번’(shib‘im weshib‘a)라는 ‘칠 운’(韻)을 사용하여, 자신의 잔혹성, 분노, 복수심, 신성모독적 오만을 극대화 시키고 그것도 ‘그의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다와 썰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18) S. Gevirtz,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31.

19) 단 하나의 예외를 제시한다면, 르호보암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 그의 친구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왕상 12:8). 말라맛에 따르면, ‘장로들’(zeqenim)은 왕정시대에도 지속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부족장들을 가리키며(삼하 17:4, 15; 왕상 8:1, 3; 왕상 20:7-9; 21:8; 왕하 10:5), ‘소년들’(yeladim)은 성격이 까다롭지만 현재의 문맥에서는 ‘문학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마 르호보암의 배다른 형제들로서 궁궐에서 자라난 왕자들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A. Malamat, “Kingship and Council in Israel and Sumer: A Parallel”, *JNES* 22 (1963), 247-253.

20) 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11.

라맥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받은 부상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참으로 가인을 해친 벌은 일곱 배이지만  
 라맥을 해친다면 일흔 번의 일곱 배를 받을 것이다.

### 3.2. 의미론적인 확대 효과: 사울의 ‘천천’과 다윗의 ‘만만’(삼상 18:8)

사울과 다윗이 블렛셋 군대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두 용사의 무용담을 춤추며 노래하였다(삼상 18:8). 이 절에 대한 히브리어 본문과 우리 말 번역은 다음과 같다.

הָקָה שָׁאוּל בְּאַלְפָיו<sup>21)</sup> וַיִּדוּד בְּרַבְבָּתָיו:

『개역』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공동』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표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매우 심하게 분노하면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죽인 공을 돌리니 그에게 왕국 외에 무엇이 더 돌아가겠는가?”라고 말하며, 그 후로부터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여기의 평행법에 대하여 전통적 평행법 이해를 유지하는 게비르츠는 ‘수천’과 ‘수만’ 사이에 의미론적인 차이가 없으며,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 왕에 대한 모독’일 수 없다고 본다.<sup>22)</sup>

이 노래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후한 칭찬을 담고 있으며, 시리아-팔레스타인의 시적인 어법인 ‘고정된 쌍’인 ‘수천’과 ‘수만’을 사용하여 가장 큰 숫자 단위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쿠겔은 달리 생각하고 있다. 그가 볼 때 게비르츠의 말이 옳다면,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과 다윗이 수천 수만을 죽였다”로 새롭게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redistribution). 그러나 여인들이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쿠겔은 여인들이 “군사적인 용맹에 있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게(even beyond Saul) 칭송할 의도로 노래하고 있다”고 보며, 여기의 숫자 평행법에

21) Qere는 אַלְפָּיו로 읽는다.

22) S. Gevirts,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24.

서 두 번째 행이 ‘더 예리한’(what’s more) 요소를 ‘최고조로’(in its full force)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sup>23)</sup> 다윗을 칭송하는 여인들의 노래는 라맥의 노래처럼 동일 어근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천천’(복수)에서 ‘만만’(복수)으로 넘어가면서 의미론적 확대 효과를 만들고 있다. 사울은 바로 이점을 느꼈기 때문에 몹시 분노하게 되었을 것이다.

### 3.3. 모호성을 통한 숫자의 상징화: 한 번 하신 말씀, 두 번 들은 말씀(시 62:11)

히브리 시의 숫자 평행법의 주류를 이루는  $x: x+1$  형식 가운데 정상적인 주석을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본문으로서 시편 62:12(BHS)를 선정해 보았다. 마소라 본문과 우리말 번역은 다음과 같다.

אַחַת הַדְּבָר אֱלֹהִים שְׁתַּיִם הוּא שֹׁמְעָתִי  
כִּי עָזָּ לְאֱלֹהִים:

『개역』 시 62:11 하나님은 한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공동』 시 62:11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두 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사옵니다. 힘은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표준』 시 62:11 하나님께서 한 마디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요

흥미롭게도 『개역』은 마소라 사본 제1행의 ‘한 번’(‘achat)과 제2행의 ‘두 번’(shettayim)을 하나로 묶어서 ‘한두 번’으로 처리하며, 『공동』과 『표준』은 두 행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은 ‘한 번’과 ‘두 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버리고, 시인의 ‘들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표준』은 원문의 형식에 충실하지만, 하나님의 ‘한 마디 말씀’과 시인의 ‘두 가지 배움’으로 해석하여 직역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 마디 말씀’에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sup>24)</sup>

로우스(Lowth)는 이 현상을 ‘특이한 현상’으로 보며, 단지 ‘평행법’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기교로 본다. 즉, 현재의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으며, 여기에 나오

23) J.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44.

24) Beat Weber, “Ps 62:12-13: Kolometrie, Zahlenspruch und Gotteswort”, *BibNot* 65 (1992), 44-46 참조.

는 숫자는 실제의 수(實數)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sup>25)</sup> 긴스버거는 ‘등급형 숫자’(graded numerals)로서 ‘등가적 평행법’(parallelism of equivalents)이라는 이름을 지었다.<sup>26)</sup> 즉, ‘한 번’과 ‘두 번’은 숫자로서 별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 두 번 말씀하셨고, 나도 한두 번 들었다’(『개역』)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앤더슨은 ‘한 번’과 ‘두 번’이 나올 때에는 ‘두 번’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셨고 나도 두 번 들었다’로 해석한다.<sup>27)</sup> 커크패트릭은 ‘한 번, 그렇지, 두 번’이란 형식은 ‘반복’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시인도 확실히 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sup>28)</sup>

별린(Berlin)은 이런 형태의 평행법에서 로우스의 ‘유사평행법’과 쿠걸의 ‘한 걸음 더 가기’(going beyond)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우며, ‘중복성’(redundancy) 대(對) ‘모호성’(ambiguity) 개념을 도입하여 둘 다 옳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sup>29)</sup>

평행법은 중복성과 다의성, 명료성과 모호성, 일치성 속의 대립성으로 구성된다. 평행법은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두지만 ‘쌍안경’(binocular)으로 보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의 시각이 동일한 사물을 약간 다른 두 개의 관점에서 포개어 보면서 한 지점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심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

별린의 입장은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화될 때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평행법 구문에서 첫 단어와 둘째 단어 사이에는 대부분 ‘계층’이 있으며, 숫자가 대구를 이루고 나타날 때에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와 ‘둘’의 평행법은 실제적인 해석과 번역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유사한 용례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어떻게 **한** 명이 천 명을 몰아 내고 **두** 명이 만 명을 쫓아 낼 수 있었겠는가?” (신 32:30).

25) R. Lowth,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s*, G. Gregory, trans. (1829), 218; S. Gevirtz,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18에서 인용됨.

26) H. L. Ginsberg, *The Legends of King Keret*, BASORSS 2/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6), 40; S. Gevirtz,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18에서 인용됨.

27) A. A. Anderson, *The Book of Psalms*,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1), 454. 그는 “숫자가 두 개의 평행구를 이루면서 나타날 때에는 두 번째 것이 중요한 숫자로 사용된다”고 본다.

28) A. F. Kirkpatrick, *The Book of Psalm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39), 351.

29)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99.

(2)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욥 33:14).

(3) “**한 번** 말씀 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표준』 욥 40:5).

위의 첫 용례(신 32:30)에서 ‘한 명이 천명을 몰아내는 정황’(1행)보다는 ‘두 명이 만명을 몰아내는 정황’(2행)은 상호유사성을 가지지만, 후자는 전자보다 더 큰 승리로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용례에서 ‘한 번’과 ‘두 번’은 ‘여러 번’으로서 ‘지속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욥 33:14). 세 번째 용례에서도 ‘한 번’과 ‘두 번’을 꼭 숫자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 ‘한 번’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의 시에서 ‘한 번’과 ‘두 번’의 용례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위에 열거된 예들을 보면 숫자가 상징화 되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즉, 여기의 ‘한 번’과 ‘두 번’은 숫자적인 ‘한 번’과 ‘두 번’이 아니다. 시편 62:11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한 번의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이며, 시인이 ‘두 번 들었다’는 것은 두고두고 반복하여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4. 동심 구조: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네 부류(잠 30:15하-16)

שְׁלוֹשׁ הַנָּה לֹא תִשְׁבַּעְנָה אַרְבַּע לֹא־אָמְרוּ הוֹן:  
שְׂאוּל וְעֶזְרָר רַחֵם  
אַרְץ לֹא־תִשְׁבַּעַה מִים וְאִשׁ לֹא־אָמְרָה הוֹן:

『개역』 죽한 줄을 알지 못하여 죽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죽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공동』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죽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 곧 지옥과 애기 못 낳는 모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죽하다” 할 줄 모르는 불이다.

『표준』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스울과 아기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잠언 30:15의 제2행은 16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셋’과 ‘넷’을 통하여 명백한 숫자 대구법을 제시하고 있다(X: X+1).<sup>30)</sup>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배열

하여 보았다.

배부른 줄 모른 것이 셋이 있으며  
 ‘만족스럽다’고 말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스올과 불임의 태와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16절에서 지혜자는 (1) 음부(스올), (2) 아이 배지 못하는 태, (3)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4) 불 사이에는 자족(自足)을 모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이 네 가지는 구문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부’(A)와 ‘태’(A),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B)과 ‘죽음을 모르는 불’(B)’이라는 두 개의 쌍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각 쌍은 두 개의 대립되는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쌍을 이루는 ‘음부’와 ‘태’에서 ‘음부’는 ‘죽음의 장소’라기보다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는 죽음의 ‘힘’과 ‘권세’이다(잠 1:12; 7:27; 27:20; 사 5:14; 합 2:15). 이와 같이 ‘태’도 ‘생명의 공간’일 뿐 아니라 ‘생명의 힘’이다. 즉, 첫 쌍을 이루는 ‘음부’와 ‘태’는 죽음과 생명의 대립적 욕망을 보여주며, 전자는 ‘죽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후자는 ‘죽을 힘을 다하여 생명을 잉태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창 30:1; 삼상 1:20).

두 번째 쌍을 이루는 ‘땅’과 ‘불’의 대립은 표면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땅’은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땅으로서,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채울 수 없는 장소와 욕망의 화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리하여 ‘땅’은 ‘땅 자체’라기보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메마른 땅이다. 따라서 이 땅은 태울 수 있는 물질이 있는 동안 꺼지지 않으며, 끝없이 타오르려는 속성을 가진 ‘불’과 대립성과 유사성을 함께 가진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개의 요소를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부’(A), ‘태’(B) // ‘물’(B), ‘불’(A)의 대립을 이루게 되며 이들은 동심구조를 이루어준다(A:B//B’:A). 외곽에 나오는 ‘음부’(A)와 ‘불’(A)은 화기(火氣)를 가지고 끝없이 생명을 삼키려고 하지만(신 32:22; 아 8:6; 계 20:14), 내곽을 이루는 ‘태’(B)와 ‘물’(B)은 ‘수기’(水氣)를 가지고 생명의 출생을 소원한다. 즉, 지혜자는 구문 구조 배후에 감추어진 의미론적인 동심구조를 통하여 이 세상에는 생명과 죽음

30) 잠 30:15 제1행의 ‘만족할 수 없는 거머리’ 영상은 15하-16절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들’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노스(North)는 잠언 30:15-16이 통일성을 이룬다고 보고, ‘거머리의 두 딸’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 셋과 넷’이 평행을 이룸으로써, ‘둘, 셋, 넷’의 숫자 대구법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논증한다. Francis Sparling North, “Four Insatiabiles [Prov 30:15f]”, VT 15 (1965), 281-282 참조.

의 대립이 끝없는 욕망의 갈등처럼 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3.5. 점강법(漸降法): 사회 질서를 뒤집어엎는 병리현상(잠 30:21-23)

지혜자는 눈꼴 시린 사회적 상황으로서 (1) 종이 왕이 됨(A), (2) 미련한 자가 배부름(A'), (3) 혐오스러운 여자가 시집감(B), (4)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잇는 것(B')이라는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sup>31)</sup> 여기의 네 가지 목록은 '성'(性)의 평행법에서 볼 때, '종'과 '미련한 자'는 남성이며(A:A'), '혐오스러운 여자'와 '여종'은 여성이므로(B:B'), 남성적 세계와 여성적 세계에서 차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종'('ebed)이 '임금'(melek)이 되는 상황에서 '종'은 일반적인 '종'이라기보다 나라의 높은 관리에 대한 완서법(緩敘法, litotes)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즉, 그는 '왕의 친구'였지만, 왕의 신임을 배반하고 음모와 책략으로 왕권을 빼앗은 자이다. 그는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독재자가 될 것이며, 기존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를 뒤집어엎음으로써 사람들이 그의 통치를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암 7:10; 삼상 12:17; 삼상 8:7; 왕상 1:40 참조). 그렇지만, 왕권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고대 사회에서 종이 임금이 되는 상황은 매우 빈번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 제시되고 있다. 잠언의 세계관에서 볼 때 '지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배가 불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가치가 전도된 세상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전 9:11). 특히 잠언에서는 '떡을 먹는 것'과 '사회적 신분' 문제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에 대한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잠 12:11; 20:13; 23:20-21; 28:19).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는 자는 '경제정의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뒤집어엎는 모순을 만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미련한 자의 배부름' 즉, 졸부들의 '사치', '과소비', 그리고 '우쭐댐'을 견딜 수 없어 할 것이다(잠 19:10).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꺼림을 받는 계집'은 '지혜로운 아내'(잠 12:4; 18:22; 31:10)와 대조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며, 허영과 사치를 일삼고, 지나가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자이다. 이런 여자가

31) Raymond C. Van Leeuwen, "Proverbs 30:21-23 and the biblical World Upside Down", *JBL* 105 (1986), 599-610.

32) 완서법(緩敘法)이란 '억제된 표현으로 도리어 더 강한 인상을 주는 수사법'을 가리킨다 (not a few, not bad at all 등).

시집을 간다는 것은 남편 집안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유발하게 된다. 여기에서 ‘시집을 가다’(ba‘al)는 것은 단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보다 아이를 낳아서 집안의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을 뜻하므로 신랑의 집안 전체가 망하는 위기가 내재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집 종’이 ‘여주인을 잇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계집 종’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의 여주인을 섬기는 자이다. 그런데 그가 그의 여주인을 ‘잇는다’는 것은 적법한 아내를 ‘내어 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창 16:1-9; 21:8-10; 30:1-23; 신 24:1-4 참조). 따라서 네 번째 상황은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최악이다. 즉, 지혜자는 점강법을 통하여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3.6. 절정 후의 전락(轉落): 네 가지 기이한 자취 후의 한 자취(잠 30:18-20)

지혜자는 숫자 평행법(X: X+1)을 통하여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으로서 (1) 독수리(geher)의 자취, (2) 뱀의 자취, (3) 배의 자취, 그리고 (4) 남녀가 함께 한 자취를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볼 때, ‘하늘’, ‘산’, ‘바다-강’, ‘집-안방’으로의 이동이 급하게 이루어진다.<sup>33)</sup>

위의 네 흔적에서 ‘독수리’(A)와 ‘뱀’(A)의 자취는 동물 세계의 신비를 보여 준다. 세 번째 ‘배의 자취’(B)는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는 전환점을 만들어주면서 곧 바로 ‘남녀의 자취’로 들어가고 있다(B’). 여기에서 ‘배’가 마치 ‘항구 안’으로 들어오듯이,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는 자취가 선정적으로 그려진다. 여기에서 ‘남자’는 ‘젊은이’(geber)이며, ‘여자’는 ‘처녀’(alma)로서, ‘함께’(be 『개역』)는 ‘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이 부분은 처녀의 첫 경험을 말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be’ishto)의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여기에 있는 네 개의 경험은 모두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로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젊은이가 처녀와 함께 한 자취’는 이 숫자 평행법에서 절정(climax)을 이루며, 가장 신비스러운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다.

위의 네 자취를 제시한 이후에 지혜자는 갑자기 ‘이와 같이’(ken)라는 부사와 함께 ‘음녀의 자취’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20절). 앞 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자취’는 신비로운 사랑을 보여주지만, ‘음녀의 자취’는 충격을 준다.

33) David Daube, “A Quartet of Beasts in the Book of Proverbs”, *JTS* 36 (1985), 380-386.



잠언에서 음녀는 왕성한 성욕을 가지고 많은 남자를 유혹하며,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자이다(잠 7:1-27). 여기에서 그녀의 문란한 성생활은 ‘먹고, 입을 씻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묘사되며, 시치미를 떼며 스스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그의 ‘입’은 성기를 암시해 준다(이 절에는 m, p와 같은 순음[唇音]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뻔뻔스러우며 그녀의 죄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본문에서는 X:X+1의 평행법이 마지막 4행에서 절정에 이르지만, 하나의 행이 더 추가되면서 정상적 패턴을 깨뜨릴 뿐 아니라, ‘절정’(climax)과 대립되는 ‘전락’(anticlimax)으로 내려가는 기법을 제시하여 준다.

## 4. 포의어

### 4.1. ‘손’(yad)과 ‘오른손’(yamin)

히브리 시에서 ‘손’(yad)과 ‘오른손’(yamin)은 여러 번 대구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창 48:14, 17; 사 3:15, 21; 5:26; 7:20; 20:16; 삼하 20:9; 시 21:8; 26:10; 73:23; 74:11; 80:17; 89:13, 25; 121:5; 138:7; 139:10; 144:11; 사 48:13; 렘 22:24; 겔 39:3; 단 12:7). 여기에서 ‘손’과 ‘오른손’이 다른 어휘들과 결합되지 않고 홀로 나타나면서 대구를 이루는 경우는 좀 더 줄어들고 있다(창 48:14; 사 5:26; 시 21:8; 26:10; 74:11; 80:17; 89:13, 25; 138:7; 139:10; 사 48:13). 우리가 볼 때 ‘오른손’은 ‘왼손’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므로, ‘손’과 ‘오른손’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어색하게 보인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사기 5:26의 본문을 선택하였으며,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 말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יָדָהּ לְיָתֵר תְּשַׁלְּחָנָה  
 וַיְמִינָהּ לְהִלָּמוֹת עַמְלִים  
 וְהִלְמָהּ סִסְרָא מְחַקָּה רֹאשׁוֹ  
 וּמְחַנְיָהּ וְחִלְפָהּ רִקְתּוֹ:

『개역』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쩍을 꿰뚫었도다

『공동』 왼손을 내밀어 말뚝을 잡고 오른손을 내밀어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 버렸다

『표준』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위의 세 번역에서 오직 『개역』만이 ‘손’과 ‘오른손’으로 제시하며, 『공동』과 『표준』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의역하고 있다. 영어 번역에서는 대부분 ‘손’과 ‘오른손’으로 제시하지만(RSV, NIV, NJB 등), NAB는 ‘왼손’과 ‘오른손’으로 제시한다. ‘손’과 ‘오른손’이 함께 나타날 때, 첫 손을 ‘왼손’으로 번역하도록 처음 제안한 사람은 다후드(Dahood)이며, 그는 우가릿의 한 본문(KTU 1.10:II:6-7)을 논거로 제시하였다.<sup>34)</sup>

qsthm ahd bydh

그의 활을 왼손에 잡고

wqst bm ymnh

그의 화살은 오른 손에 (잡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용사가 활과 화살을 한 손에 잡을 수 없으므로 첫 행에 나오는 ‘손’(ydh)을 ‘왼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sup>35)</sup> 이 점에 대하여 쿠겔은 현재의 본문에서 두 손이 ‘동일한 가치’(equative)를 가진 것인지 혹은 ‘다른 손’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며, ‘동일 가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sup>36)</sup> 알터는 ‘손’과 ‘오른 손’이 다른 곳에서는 유사어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왼손을 가리킨다고 한다.<sup>37)</sup> 그러나 벌린은 이 둘을 ‘등위어’(coordinates) 대신에 ‘용어’와 ‘하위어’(subordinate)의 관계로 보며, 전자를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후자를 ‘손의 하부 범주’로 해석한다.<sup>38)</sup> 그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세 개의 본문(시 138:7; 사 48:13; 시 89:25)에서 두 손은 ‘두 개의 분리된 손들’이 아니며, 동사와 연관된 행동도 ‘두 개의 동작’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능숙하게’(handily)로 번역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한다고 본다.<sup>39)</sup> 언어학적으로 볼 때, 첫 행에서 ‘일반적 범주’가 제시되고, 둘째 행에서 첫 행과 연관된 ‘하위 범주’가 나타날 때, 이런 관계를 ‘포의어’(hyponym)라고 한다. 즉, 첫 행의 ‘손’은 ‘넓은 범주’이며, 둘째 행의 ‘오른 손’은 좁은 범주이다. 따라서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이 아니라, ‘손’과 ‘왼손’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34) 그는 우가릿의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을 제시한다(KTU 1.4: II:12-13; 1.16:I:41, 47).

35) 그러나 포우프(Pope)와 고든(Gordon)은 제2행에 있는 단어 qst가 ‘화살’이 아니라, ‘활’에 대한 동의어라고 주장한다. Marvin H. Pope, “Marginalia to M. Dahood’s Ugaritic-Hebrew Philology”, *JBL* 85 (1966), 455-466. Cyrus H. Gordon, *Ugaritic Textbook* (Roma: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65).

36) J.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43.

37) 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45.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왼손’이 의도되었다면 ‘왼손’(lamof.)과 ‘오른손’(lymiy”)의 평행법이 나타났을 것이다(삿 7:20).

38)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15.

39) *Ibid.*, 16.

## 4.2. 포의어 2: 머리와 정수리

시스라의 죽음을 묘사하는 사사기 5:26에는 ‘머리’와 ‘관자놀이’가 대구를 이루지만, 구약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머리’와 ‘정수리’가 대구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다(창 49:26; 신 33:16; 시 7:16; 68:21).<sup>40)</sup> 『개역』은 일관성 있게 ‘머리’와 ‘정수리’로 번역하지만, 『공동』과 『표준』은 가끔 ‘의역’을 하거나, ‘의미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1) 창세기 49:26에서 『개역』과 『공동』은 ‘머리’와 ‘정수리’를 담고 있으나, 『표준』은 ‘정수리’를 ‘으뜸’으로 의역한다.

(2) 신명기 33:16에서 『개역』과 『공동』은 ‘머리’와 ‘정수리’를 담고 있으나, 『표준』은 ‘의역’도 없이 생략하여 버린다.

(3) 시편 7:16에서 『개역』과 『공동』은 ‘머리’와 ‘정수리’를 담고 있으나, 『표준』은 ‘머리’를 ‘그’로 의역하며, ‘정수리’를 살린다.

(4) 시편 68:21에서 『개역』과 『표준』은 ‘머리’와 ‘정수리’를 담고 있으나, 『공동』은 ‘정수리’를 ‘더부룩한 골통’으로 의역하고 있다. 『공동』에서 ‘더부룩한’이란 단어는 ‘머리털’에서 나왔으며, 고대의 용사들은 전쟁터에 임하기 전에,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르는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른 것도 이런 관습을 반영하였다(삿 13-16장). 긴 머리는 넘치는 힘과 불굴의 자존심을 상징할 뿐 아니라, 신에게 특별한 서원을 하였음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수복한 머리’는 ‘시적인 관용구’(Buttenwieser), 혹은 제유법으로서,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을 뜻할 수 있다(HALOT).

위에 나타난 용례를 볼 때, ‘머리’와 ‘정수리’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머리’에서 구체적으로 ‘정수리’로 넘어가는 종속적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머리를 때리다’보다는 ‘정수리를 치다’가 더 결정적이다. 사람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계산되며 이 둘은 인체 전체를 가리킨다(신 28:35, CAD Q: 103b). 따라서 ‘머리’와 ‘정수리’가 나타날 때에도 두 단어의 관계는 포의어이다.

## 5. 결론

40) 이 두 단어는 우가릿 문헌에서도 자주 대구를 이루며 나타난다(UM 127:55-57; UM 2 Aqht IV 36-37; UM 67 VI 14-16). 우가릿 문헌에서는 “May Hornon smash your head, Athtart, the name of Baal, your skull”의 대구가 나타난다. M. Dahood, *The Psalms*, vol. 1 (Garden City: Doubleday, 1966-1970), 47; S. Gevirtz, *Patterns in Early Poetry of Israel*, 7-8.

우리는 본고에서 몇 개의 대표적인 평행법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동일 어휘의 반복을 통한 점층 효과, 생략을 통한 이중 효과, 음성학적 유사성을 통한 극대화, 의미론적인 확대 효과, 동심구조, 점강법(漸降法), 절정 후의 전락(轉落), 포의어 등의 기법을 살펴보았다.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기에 열거된 기법들은 종합적인 것이 아니며, 몇 개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법들은 독자적인 범주를 가진 것이라기보다, 쿠걸이 밝힌 ‘연관된 강조적 재진술’(related emphatic statement)의 범주 안에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본고에 다룬 평행법은 대부분 의미론적인 것이며, 아직까지 충분하게 전개하지 못한 ‘음성학적 평행법’과 히브리 시의 운율(韻律) 문제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주요어>(Keyword)

유사 평행법, 교차대구법, 야누스 평행법, 등가적 평행법, 포의어  
synonymous parallelism, chiasm, janus parallelism, parallelism of equivalents,  
hyponym

<참고문헌>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 Anderson, A. A., *The Book of Psalms*,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1
- Beeston, A. F. L., “One Flesh [Gen 2:24; uxorilocal marriage]”, *VT* 36 (1986), 115-117.
- Berlin, A.,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 Press, 1985.
- Boling, R. G., “Synonymous Parallelism in the Psalms”, *JSS* 5 (1960), 221-55.
- Briggs, Charles Augustus & Briggs, Emilie Grac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Edinburgh: T. & T. Clark, 1906-1907.
- Brueggemann, Walter A., “Of the Same Flesh and Bone, Gn 2:23a”, *CBQ* 32 (1970), 535
- Busenitz, I. A., “Woman’s Desire for Man. Genesis 3:16 Reconsidered”, *GTJ* 7 (1986), 203-212.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Israel Abrahams, trans., Jerusalem: Magnes Press; Hebrew University, 1961.
- Daube, David, “A Quartet of Beasts in the Book of Proverbs”, *JTS* 36 (1985), 380-386.
- Davidson, R. M., “The Theology of Sexuality in the Beginning: Genesis 3”, *AUSS* 26 (1988), 121-131.
- Foh, Susan., “What is the Woman’s Desire?” *WTJ* 37 (1974/75), 121-131.
- Ginsberg, H. L., *The Legends of King Keret*, BASORSS 2/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6.
- Gordon, Cyrus H., “This Time (Genesis 2:23)”, M. Fishbane, et al, eds., *Sha’arei Talmon: Studies in the Bible, Qumran, and the Ancient Near East presented to Shemaryahu Talmon*,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2, 47-51.
- Gordon, Cyrus H., *Ugaritic Textbook*, Roma: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65.
- Kirkpatrick, A. F., *The Book of Psalm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39
- Kselman, John S., “Janus Parallelism in Psalm 75:2”, *JBL* 121 (2002), 531-532.
- Korsak, Mary Phil., “Translating the Bible: Bible Translations and Gender Issues”, A. Brenner, eds., *Bible Transl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32-146.

- Kugel, J.,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 Lowth, R.,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 Scriptures*, G. Gregory, trans., 1829.
- Malamat, A., “Kingship and Council in Israel and Sumer: A Parallel”, *JNES* 22 (1963), 247-253.
- Malul, Meir, “Janus Parallelism in Biblical Hebrew: Two More Cases (Canticles 4,9.12)”, *Biblische Zeitschrift* 41 (1997), 246-249.
- North, Francis Sparling, “Four Insatiabiles [Prov 30:15f]”, *VT* 15 (1965), 281-282.
- O’Connor, M. P., *Hebrew Verse Structure*,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79.
- Ouellette, L., “Woman’s Doom in Genesis 3:16”, *CBQ* 12 (1950), 389-399.
- Pope, M., “Marginalia to M. Dahood’s Ugaritic-Hebrew Philology”, *JBL* 85 (1966), 455-466.
- Van Leeuwen, Raymond C., “Proverbs 30:21-23 and the biblical World Upside Down”, *JBL* 105 (1986), 599-610.
- Vogels, Walter, “The Power Struggle between Man and Woman (Gen 3,16b)”, *Biblica* 77 (1996), 197-209.
- Ward, Grant H., “Two Words (and their translations) that have indeed Hurt”, Robert F. Shedinger, Deborah J. Spink, eds., *Who killed Goliath?* Valley Forge: Judson Pr, 2001, 11-26.
- Watson, Wilfred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JSOT Press, 1986.
- Weber, Beat, “Ps 62:12-13: Kolometrie, Zahlenspruch und Gotteswort”, *BibNot* 65 (1992), 44-46.

<Abstract>

## **The Burden of Parallelism in the Bible Translation: Part Two-Illustrations**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Following the previous article on “the Burden of Parallelism in Bible Translation: Part One-A Theoretical Foundation” in *JBTR* 19 (2006), 7-27,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several poetic texts. Generally following the perspective of J. Kugel’s idea of ‘seconding’ character of the second line in a poetic verse, the author gives some concrete illustrations as follows: (1) crescendo by repetition (Gen 2:23), (2) ellipsis and double duty (Gen 3:16; 4:7), (3) maximization by phonetic similarity (Gen 4:23-24), (4) semantic extension (1Sam 18:8), (5) symbolization of numbers by ambiguity (Psa 62:11), (6) chiasitic structure (Pro 30:15b-16), (7) decrescendo (Pro 30:21-23), (8) degradation after climax (Pro 30:18-20), (9) hyponym (Jud 5:26 etc). Based on the poetic analysis, the author dares to suggest new Korean translations on the relevant texts discussed in this paper.